

# 1조 규모 화양지구 개발 투자업체 국제 공모

광양경제청, 사업 조기완료 위해 내년 2월 시행사 선정  
일상해양산업과 기존 사업 병행하며 투자 활성화 모색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이 화양지구 관공단지 개발을 조기 완료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나선다.

8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에 따르면 1조 700억 규모의 화양지구 관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국내 및 국제공모를 지난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사업 면적은 998만 9000㎡ 규모로 내년 2월 중 사업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광양경제청은 그동안 경기침체 장기화로 화양지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들어 주변지역 관광여건 호전과 한중 FTA체결 등으로 화양지구에 대한 투자기치가 높아졌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기에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국제 공모는 기존 사업시행자

인 일상해양산업과의 기존 사업을 병행하면서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번 사업시행자 선정은 국내기업은 물론 중화권 투자자본 등을 겨냥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규모는 네이컬처지구, 마리아비치지구 등 5개 지구이며, 예상 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설계비도 400억~5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자는 각 지구별 사업대상지의 사업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단수 또는 복수의 지구에 대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와는 별개로 최근 화양지구 내에 스파장, 호텔, 콘도 사업을 위해 국내외

## ■ 화양지구 개발 계획



4개 사업 시행자들이 MOU를 체결하고 사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레저형 경제자유구역인 화양지구는 따뜻한 기온과 다도해의 수려한 전망으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관광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화양지구는 또 현재 공사중인 연륙연도교와 국지도 22호선(여수 소라~화양), 국도 77호선(고흥 적금~여수 화양)이 완공

되면 여수공항, 엑스포역, 여수항 등과도 20분대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인근 고흥반도와 여수엑스포 개최지, 경도 등과 연계한 남해안 관광중심지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으로 분석되면서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봉 경제청장은 “국내외 극심한 경제침체로 화양단지 개발 사업이 지연돼 안타깝다”면서 “국제공모를 통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투자자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화양지구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에서는 일상해양산업(주)이 2006년부터 골프장과 연수원 등을 건설해 운영중이다. 광양 경제청은 현재 추가로 13만4000㎡(350실) 규모의 콘도와 6만1000㎡ 규모의 5성급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 절차를 진행중이다.

／광양=박영진·배영재기자 pyj4079@

## LA 한인축제 간 광양 농특산물 인기

5만달러 판매·10만달러 수출계약 성과

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LA 한인축제’에 참가해 5만달러의 광양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1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8일 밝혔다.(사진)



이번 해외 판촉활동에는 다압매울 영농조합이 참가해 매실차, 농축액, 김치류 등의 식품을 비롯한 감말랭이, 녹차, 부각류 등 광양농특산물을 시음·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광양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매실

관련 식품을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국제식품박람회, ‘LA 한인축제’ 등 해외 시장개척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 광양 공시장 김기 용, 서천번서 화살 제작 시연회

광양 공시장 김기(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사진) 용이 광양시민의 날을 맞아 서천번서에서 공시의 전통 공예 기술을 선보인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14회 광양숭불구이 축제가 열리는 서천번서에서 광양 화살의 원형 보존·전승을 위한 광양 공시 제작 기술 공개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기 공시장의 작품인 ‘한국의 공시’, ‘쇠뇌전’, ‘죽시’, ‘대우전’ 등 다양한 화살이 전시되고, 공시장의 화살제작 시연과 전통 궁중놀이인 투호 등도 즐길 수 있다.

특히 김기 공시장이 3개월 동안 음지와 양지를 번갈아 가며 건조한 화살대중 무게와 직경이 일정한 상대편을 고른 뒤 총 133번의 과정을 거쳐 화살을 완성하는 과정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광양화살은 시누대와 꿩깃, 화살촉, 복숭아 나무 오니(화살 뒤쪽에 세로로



파인 흙) 등을 소재로 만들어 매우 정교하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 공시장은 “이번 공개행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통 공예기술의 정수이자 결정체인 작품들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중국·사면시 전통무용단



광양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한국·중국·필리핀 전통 민속공연이 민원 관중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감됐다.

광양시는 “지난 6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양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한·중·필리핀 전통 민속공연’이 500여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개국 전통 민속공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문화예술 및 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제2회

## 한국·광양시립국악단



## 한·중·필리핀 전통민속 광양서 화합 공연

500여 객석 가득 매워...문화예술 국제교류 성과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행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한·중·필리핀 3개국이 펼친 이번 합동 공연에서는 한민족의 얼이 담긴 광양시립국악단의 신명나는 공연과 중국 전통무용단의 춤사위, 필리핀 만다나오 섬 특유의

음악과 댄스를 선보였다. 광양시립국악단은 피리 3중주, 국악가요, 모듬북 협주곡 등을 선보였으며, 중국 사면시 전통무용단인 스핑구 예술단은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창작무용으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 필리핀·까가얀데오로시 공연단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 공연단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고유의 음악과 춤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했다.

김미란 광양시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민속공연은 국제교류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외국인에게는 광양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

## 만타시간 국제우호교류 의향협약



## 광양시, 에콰도르 만타시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광양시가 남미 에콰도르의 만타시와 우호교류 의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양시청에서 정현복 광양시장과 만타시의 호르헤 잠부라노 시장 및 만타시의회 의원 3명은 의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교류협력을 통해 우호교류도시, 자매도시로 발전시

키자는데 합의했다. 정현복 시장은 “광양시는 시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외국도시들과 교류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며 “다자간 FTA가 보편화 되고 있는 시점에 만타시가 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연결하는 중심항만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잠부라노 만타시장은 “세계 16위권의 항만도시이자 신도시 건설 경험을 갖고 있는 광양시와 협력관계를 통해 향후 항만 개발과 도시건설 전반적인 면에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만타시는 중남미의 태평양 중심부에 있는 에콰도르의 항만도시로 항만과 어업 전진기지가 발달돼 최근 미국 부유층의 발원지로 인기가 높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제철 원료 안전 운송 위해 물류시스템 점검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가 최근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물류시스템 점검 및 보완에 나섰다.

8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최근 제철소 내 운행 흐름을 개선하고 물류효율화를 위해 소내 3개 철도건널목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내에서는 원료 및 제품 운반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형차량이 운행 중인데 신호등이 없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마다 일당정지 후 좌우의 기관차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출

발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대형차량의 반복 정지로 타이어 마모와 과도한 연료 소모, 운송시간 지체 등을 비롯한 운송시간 지연으로 제품온도마저 낮아져 생산원가마저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안동일 광양제철소장은 “철도 건널목 신호 등 설치 등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 원가 등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회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오케스트라연원, 회사원 26~41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비스온빌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안장
- 양분장
- 배수갑문
- 상하수도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구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DjM 물관리자동화

www.daeyoung.com (062) 670-0300